

# 남광토건의 역사가 대한민국 건설의 역사입니다



공영 플레타덤



경원선 개량공사



중앙영주개회교

## 건설 외길 58년, 전문건설업체의 위상을 통해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나...

### 신규 브랜드인 '마이루트'

남광토건은 광복 직후인 1947년 7월 7일 부산에서 '남광토건사'란 이름으로 창립되었다. 이 시기 식민지배와 남북분단의 혼란기 동안 폐쇄된 철도·항만·도로·교량 등에 대한 광범위한 도시 재건 사업에 일익을 담당하며 회사의 기틀을 착실히 마련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전후 복구사업이 시작될 무렵 그간 착실히 쌓아온 신용과 건설한 기업운영을 바탕으로 주로 토목분야에서 빠른 성장을 보여, 1954년에는 '남광토건주식회사'라는 법인으로 새롭게 탄생하였다.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던 남광토건은 1964년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고 사업 분야를 건축과 토목, 플랜트 등 전부분으로 확대시켜 나갔고, 타업체들이 기피하는 어려운 공사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수행하는 개척자 정신을 발휘하여 대형 건설사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갔다.

남광토건은 1974년 5월 필리핀에 첫 진출한 이래 활동무대를 아시아와 중동으로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해외공사 공략을 추진했다. 이후 38건 총 15억불 규모의 해외공사를 수행하여 한국 건설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며 국내 시공능력 7위권의 건설사로 성장했다.

1982년에는 '해외건설 10억불탑'을 수상하였고, 신천하수 종말처리장, ADB 차관도로, FED(미 극동 공병단) 공사와 부산 제2 도시고속도로 등 다양한 공사를 수행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1990년도에는 국내 최초의 한강 하저터널인 지하철 5호선 공사와 Precast-Segment 공법을 도입한 강변북로 등 고난도 대형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토목분야에서 독보적인 명성을 쌓아 갔다. 또한 이 시기 주택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주택부문에 빠른 성장을 이룩했다.

#### 자연친화적 주거문화 구축

이후, 남광토건은 2000년도에 첫 선을 보인 21세기형 아파트인 쌍용 '스윗닷홈'과 '플래티넘'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현재, 남광토건은 새로운 브랜드 '마이루트(My Root)'를 개발해 고객의 꿈과 행복을 실현시키기 위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주거문화 패러다임을 선보이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SOC 사업, 턴키사업, 해외사업 개발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설 선진화를 이끌어 나가는 초일류 건설사로 거듭나기 위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는 남광토건은 신뢰, 상생, 봉사의 정신아래 신뢰를 기본으로 주주와 임·직원, 고객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과 더불어 나아가며 나아가 사회와 서로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